

작곡가 구두회의 이력(履歷)과 한미 감리교회의 후원

허 지 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강사)

1. 글을 시작하며

구두회(具斗會, David Tuhoy Koo, 1921. 9. 4 - 2018. 9. 24)는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찬송가인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1966)¹⁾에 곡을 붙인 작곡가로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다.

음악인 구두회의 행보는 크게 예술음악 작곡가의 길과 교회음악가의 길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예술음악 작곡가로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20대 중반인 1945년에 가곡 《사우월》(思友月)을 작곡한 이후 《머들령》(1948), 《순이 무덤》(1951), 《길》(1968) 등 20여 곡의 가곡을 남겼다. 미국 유학 후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초연한 《저지당한 꿈》(1960)²⁾을 비롯하여 제1회 서울 국제음악제 중 ‘한국 작곡가의 밤’에서 연주된 《어둠을 깨치는 아침》(1962) 등 4편의 관현악곡과 합창곡 《봄(3題)》(1975)³⁾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화성학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71)와 『대위법 연구』(학문사, 1975)⁴⁾를 저술하여 이론가로서의 능력도 발

1) 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305장.

2) 서울시립교향악단 ‘제82회 정기연주회’에서 김생려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국립극장, 1960년 6월 30일.

3) 국립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에서 나영수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국립극장, 1975년 10월 11일.

휘하였다.

다음으로 교회음악가로서의 행보를 보면, 20대 초부터 60대 중반까지 평양·대전·서울의 교회와 보스톤의 한인교회(유학시절), 미8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쉼 없이 활동하였으며,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이외에도 찬송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1966),⁵⁾ 성가 합창곡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1961)와 《여호와께 경배할지이다》(1967) 등을 작곡하였다. 1951년 부산에서 출발하여 한국 교회음악계의 대표적인 단체로 성장한 한국교회음악협회의 초기 회원으로서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1980년부터 1981년 사이에는 같은 단체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감리교를 대표하는 음악가로서 한국찬송가위원회 위원(1962-1972) 및 한국찬송가공회 음악전문위원(1981-1999)을 맡아, 찬송가 편찬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이러한 양 갈래 행보를 통해 예술음악계와 교회음악계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교회음악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⁶⁾

그런 이유에서인지 구두회를 다룬 저작이나 연구물을 보면 교회음악가로서의 역할을 조명하는 글이 주로 발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홍정수의 “구두회, 김의작, 김두완의 교회음악”(1998)⁷⁾과 김규현의 『한국 교회음악 작곡가의 세계』(2002)⁸⁾가 있다. 반면에 예술음악가로서의 작품 세계에 초점을 맞춘 문헌으로는 1980년에 작곡가 자신이 발표한 “한국적 예술가곡의 창작을 위한 논리연구와 시도작품 분석: 자작품 〈머들령〉을 중심으로”⁹⁾를 제외하고는 두드러지는 것이 없다.

구두회는 1921년 공주에서 가난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 세대의 한국인이 모두 그렇듯이, 그의 삶은 일제 말의 전쟁기와 해방, 미군정기, 6·25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전개되었다.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1963

5) 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 304장.

6) 이외에도 다수의 동요와 어린이 찬송가를 작곡하여, 어린 세대를 위한 음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동요로는 《나 혼자만 어떻게》, 《메아리》, 어린이 찬송가로는 《믿음 소망 사랑》(이정수 작사, 『어린이 찬송가』, 한국찬송가위원회, 1988, 281장) 등을 남겼다.

7) 홍정수, “구두회, 김의작, 김두완의 교회음악,” 『장신논단』 14 (1998), 596-626.

8) 김규현, 『한국 교회음악 작곡가의 세계』 (서울: 예술, 2006).

9) 구두회, “한국적 예술가곡의 창작을 위한 논리연구와 시도작품 분석: 자작품 〈머들령〉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20 (1980), 447-493.

년에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임용될 때까지 그의 삶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지만, 구두회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이를 통한 신분 상승의 집념을 놓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그가 평생을 속해 있었던 감리교회의 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목사, 교회를 통해 맺은 인맥 등이 그를 후원하였다. 이 논문은 이에 주목하여 구두회라는 식민지의 가난한 소년이 한 단계씩 성과를 쌓아가면서 1960년대 이후 음악계의 중진으로 도약하는 입지전적인 궤적을 ‘교회의 음악가 후원’이라는 측면에서 다룰 것이다. 대상 시기는 유년기에서 미국 유학을 떠나는 시점까지로 한정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양악사는 그 출발부터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창기 양악인 중 다수가 교회에서 처음 찬송가와 풍금을 통해 서양음악을 접했으며, 이들 중 극소수는 선교사의 주선으로 이미 1920년대부터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화 출신으로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엘리슨화이트 콘서바토리(Ellison-White Conservatory)에서 디플로마를 취득한 김애식,¹⁰⁾ 송실 출신으로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Moody Bible Institute)로 유학을 떠난 현제명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필자가 1921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의 끝자락에 20대 청년기를 보낸 구두회의 이력에 주목하여 이를 교회와의 연관 속에서 조망하려는 이유는 먼저, 구두회의 인생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인맥의 후원이 고비마다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선생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직접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음악계의 형성에 미국 개신교와 한국 교회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지점이지만, 초기 음악인의 경력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가 미진하고 구체적인 증언이나 자료가 희소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홍난파는 1931년에 시카고의 셔우드음악학교(Sherwood Music School)로 유학하였는데, 이 학교는 당시 송실에서 음악을 지도하였던 드와이트 말스베리(Dwight R. Malsbary, 1899-1977) 선교사의 모교이기도 하다.¹¹⁾ 이런 연관성을 볼 때, 홍난파의 유학을 말스베리가 주선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언을 찾

10) 김애식의 미국 유학과 관련된 정보는 허지연, 『제국 속의 제국: 미국의 해외선교와 한국의 음악교육』 (서울: 민속원, 2019), 61-63을 참고할 것.

11) 말스베리는 1929년부터 1936년까지 송실전문학교 음악부의 책임자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그의 생애는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송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 8 (2016), 93-100을 참고할 것.

기는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에서 구두회의 구술은 양악사 초기에 이루어진 교회의 음악가 후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유의미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구두회는 소년기에서 30대 말에 미국 유학을 떠나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감리교 계통의 교회와 미션스쿨에서 배우고 가르쳤고 여러 선교사와 교역자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력은 교회의 음악가 후원 양상을 압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여겨진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교회의 지원이 더욱 절실했던 점도 구두회의 이력에서 교회의 후원이 부각되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아르코예술기록원이 주관한 2017년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의 일환으로 필자가 진행한 구두회 선생과의 인터뷰를 출발점으로 한다.¹²⁾ 그러나 연구자는 구술자의 구술을 그 자체로 사실(史實)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분석’의 재료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구두회라는 한 개인의 기억을 역사적 사건, 관련 인물의 생애, 관련 기관의 문서와 교차 검증하여 ‘역사화’하고, 더 나아가 이를 한 시대를 조망하는 통로로 활용할 것이다.

이외에도 구두회에 관한 연구는 한국양악사의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송실과 연희의 음악 활동과 맥을 같이 하는 장로교 인맥의 음악가들과는 구분되는 감리교 인맥의 음악가들을 조명한다. 둘째, 경성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 양악계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주변적인 사건에 시선을 돌리는 효과가 있다. 구두회의 음악 관련 이력은 1940년대 초 평양요한학교 재학 중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갓 귀국한 성악가 이유선(1911-2005)에게 개인지도를 받으면서,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합창 활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유선이 평양에 정착한 사실이나 평양 내 감리교 계통 학교의 음악 활동에 대한 언급은 기존의 근대양악사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 논문에서 새롭게 부각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한국음악계의 형성이라는 화두를 한반도의 절반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뛰어넘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트랜스내셔널

12) 구두회 선생의 구술 영상은 아르코예술기록원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구술채록문은 예술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https://www.daarts.or.kr/handle/11080/107339>). 이 자리를 빌려 사업을 진행한 아르코예술기록원과 실무를 맡은 김현옥·정보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 해방 이전 구두회의 이력

1. 어린 시절부터 평양요한학교 입학 전까지

구두회의 어린 시절 기억은 교회에서 사정¹³⁾으로 일했던 아버지와 형, 자신 이렇게 삼부자의 곤궁한 삶에서 출발한다. 구두회의 출생지인 충청남도 공주는 미감리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현 United Methodist Church의 전신)의 선교지역이었으며,¹⁴⁾ 구두회는 어렸을 때 미감리회 미션스쿨이었던 영명학교 밑에서 살았다고 회고하였다.¹⁵⁾ 이런 정황을 보면, 구두회의 부친이 일한 교회는 1903년에 설립된 공주제일교회(또는 공주읍교회)¹⁶⁾이다. 1880년대 중엽에 서울에 자리 잡은 미감리회 선교사가 정동제일교회와 이화학당·배재학당을 세웠듯이, 1900년대 초에 공주에 파견된 선교사는 공주제일교회와 영명학교·영명여학교를 열었고, 그곳에서 구두회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구두회는 일찍부터 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교역자를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교회에 강력한 소속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후 구두회의 가족은 대전으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보통학교를 다닌 구두회는 대전감리교회(현 대전제일교회의 전신)에 출석하였다. 구두회는 보통학교 고학년 즈음에 성가대에 섰는데, 이것이 그가 청소년기에 받은 유일한 ‘음악수업’이었다. 회고에 따르면, 당시 대전 철도국에서 근무하던 박유현 선생이 성가대를 지도하였고, 그로부터 악보 보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주는 아침을 먹고,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나날이

13) 사정(使丁)은 관청이나 기관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남자 하인을 가리키는 옛 표현이다.

14) 1909년에 미감리회와 북장로회가 맺은 선교지역 분할협정에 의해, 미감리회는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도 일부, 평양, 황해, 평남, 평북 일부에서 선교활동을 벌였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2011), 168-173 참고.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구두회』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18.

16) “공주제일교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1년 8월 10일 접속].

이어졌다.¹⁷⁾ 소년 구두회에게 교회는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학업을 이어가지 못해 고민하던 구두회에게 진학의 계기를 마련해준 곳도 교회였다. 그는 부흥회를 위해 방문한 변홍규(1899-1976)¹⁸⁾ 목사에게 진로를 상담하였다. 변 목사는 구두회와 같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당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감리교신학교¹⁹⁾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구두회의 사정을 듣고 평양요한학교 입학의 권유하였으며, 학감인 이환신 목사에게 추천서를 써주었다. 또한 요한학교를 졸업하면 감리교신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²⁰⁾ 당시 구두회의 학력이 보통학교 졸업으로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감리교신학교 입학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변홍규 목사의 추천서를 받았지만, 경제적인 여건 탓에 진학을 미루고 있던 중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담임 목사인 서태원²¹⁾과 지역 선교사였던 찰스 아멘트(Charles C. Amendt, 한국명: 안명도, 1893-?)²²⁾와 매런 보딩(Maren P. Bording, 한국명: 보아진, 생몰년 미상)²³⁾이었다. 구두회는 보딩

17) 아르코, 『구두회』, 19, 38-39.

18) 충남 공주 출신. 공주 영명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와 중국 칭다오를 거쳐 미국에서 유학했다. 1928년 미국 뉴저지의 드류(Drew)신학교를 졸업하였고, 1931년 같은 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교회와 만주 하얼빈교회에서 사역하였으며, 1934년 귀국하여 감리교신학교에 부임하였다. 1939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감리교신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1948년까지 재임하였다. “변홍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1년 7월 31일 접속].

19) 현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전신이다. 1907년 협성신학교로 문을 열었으며, 1931년에 감리교신학교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20) 아르코, 『구두회』, 20.

21) 감리교 목사로 서재필(1864-1951)의 일가이다. 『대전제일교회 100년사』(기독교대한감리회 대전제일교회, 2008)에 의하면, 그는 도쿄 아오야마(青山)대학 신학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1939년에 대전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다(527). 감리교신학교 교원으로 부임한 직후 한국전쟁 중에 납북되었다(1091). 그는 『한국감리교인물사전』, <https://kmc.or.kr/dic-search>에 소개되지 않아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22) 미감리회 소속 선교사. 미국 오하이오주 출생. 마운트유니온 대학과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였다. 1917년 내한하여 공주에 주재. 영명학교 교장을 역임하였고, 지역 감리사로서 다수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1940년에 귀국하였다가, 1947년에 재차 내한하였으며, 1950년에 영구 귀국하였다. “아멘트,” 『한국감리교인물사전』, <https://kmc.or.kr/dic-search> [2021년 8월 16일 접속].

23) 미감리회 소속 여성선교사. 1916년 필리핀에 파견되었다가 1922년 한국으로 왔다.

선교사를 회상하며, “나를 귀엽게 보셔 가지고서는 나를 유치원 학비를 등록금을 다 대줘서는 그래서 내가 공주 제일감리교회에서 경영하는 유치원을 마쳤었습니다”²⁴⁾라고 말했다.

한국인 목사와 두 명의 선교사가 함께 구두회의 평양 유학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모범적인 청년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장래에 지역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할 재원으로 기대를 받았음을 말해준다. 처음에는 세 명이 구두회를 지원했지만, 1940년대 초에 미일 관계의 악화로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서태원 목사가 구두회의 학비를 단독으로 감당하게 되었다. 구두회의 회고에 의하면, 서 목사가 ‘고학을 하겠다’는 구두회의 각오를 전해 들은 후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²⁵⁾ 당시 서 목사는 구두회를 음악가가 아닌 교역자로 키울 의도로 평양 유학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구두회는 서 목사가 “[두회가 요학학교를 졸업하고] 오면은 내가 관할하는 짹짹한 지교회에 이렇게 담임자로 보내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저 담임하기끔 하고”²⁶⁾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평양요한학교 시절

구두회는 1940년 4월에 평양요한학교에 입학하여 1943년 3월에 제3회로 졸업했다. 평양요한학교는 미감리회 선교사인 존 무어(John Z. Moore, 한국명: 문요한, 1874-1963)²⁷⁾가 1938년 3월에 평양 대찰리에 세운 학교로 처음에는 ‘성경학교’ 형태로 출발하였다. 무어가 초대 교장을, 이환신(1902-1984)²⁸⁾ 목

공주에서 유아진료소를 운영하였으며, 대전에도 영아관을 세웠다. “보딩,” 『한국감리교인물사전』, <https://kmc.or.kr/dic-search> [2021년 8월 16일 접속].

24) 아르코, 『구두회』, 21.

25) 아르코, 『구두회』, 22.

26) 아르코, 『구두회』, 24-25, 52-53.

27) 무어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출신으로 1903년 드류신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미감리회 선교사로 내한하였다. 서울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평양으로 파송되었으며, 40여 년을 관서 지역에서 선교하였다. 교육사업에 특히 주력하여 1918년 광성고등보통학교, 1920년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세웠다. 그는 재임 중에 160여 개의 교회와 30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무어,” 『한국감리교인물사전』, <https://kmc.or.kr/dic-search> [2021년 8월 16일 접속].

28) 이환신은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태어났으며, 보통학교 교사의 인도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1927년 협성신학교를, 1931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였으며, 1933년

사가 초대 학감을 맡았다.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감리교 선교사인 무어는 1938년에 “자신의 한국 선교 35주년 기념사업 겸 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서부연회 지역에 교역자 양성기관 설립을 계획”²⁹⁾했는데, 그곳이 바로 구두회가 입학한 평양요한학교이다.

요한학교 재학 중에 구두회의 음악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이유선에게 개인지도를 받게 된 것이고, 둘째는 평생 우정을 나누며 교회음악가의 길을 함께 걸은 장수철·박재훈과의 만남이며, 셋째는 평생을 해로한 부인 김경환과의 만남이다.

구두회의 음악 스승이 되는 이유선은 평양에서 감리교회 이익모 목사의 3남으로 태어났으며, 감리교의 엘리트 과정인 배재고등보통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1940년에 미국 시카고의 아메리칸 콘서바토리(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³⁰⁾를 성악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이유선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뉴욕 이화재단 본부로부터 귀국 후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가르치라는 지시를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에 도착하였으나, 총독부 학무국으로부터 임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자 평양에 정착하였다. 당시 이화의 음악과장인 김메리는 “일미 관계 악화로 인해 미국 유학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며 이유선의 임용이 쉽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다고 한다.³¹⁾

이후 요한학교에서 음악과 영어를 지도하였으며, 평양 감리교의 대표적인 교회인 평양교회(남산현교회)³²⁾의 성가대를 지휘하였다. 당시 평양의 양악계는 서울과 비교해서 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1930년대에 현제명의 지도하에 활발한 연주 활동을 전개한 연희전문을 거쳐 아메리칸 콘서바토리를 졸업한 이유선은 평양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까지 한 번도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받지 못한 구두회에게 이유선과의 만

에 미국 내슈빌의 밴더빌트(Vanderbilt)대학 신학부를 졸업하였다. “이환신,” 『한국 감리교인물사전』, <https://kmc.or.kr/dic-search> [2021년 8월 2일 접속].

29) 윤춘병 편, 『평양요한학교와 이환신 교장』 (서울: 평양요한학교동문회, 2003), 18-19.

30) 아메리칸 콘서바토리는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음악학교 중 하나로, 1886년에 개교하였다.

31) 이유선, “회상의 글,” 『평양요한학교와 이환신 교장』, 윤춘병 편 (서울: 평양요한학교동문회, 2003), 122.

32) 감리교 평양교회(남산현교회)는 장로교의 장대현교회·산정현교회와 함께 평양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회였으며, 현 남산교회(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전신이다.

남은 의도치 않은 '선물'이자 일생일대의 전환이었다. 그는 동기인 박재훈과 함께 선생에게 개인지도를 청하였고, 악전·화성법·대위법을 지도받았다.³³⁾ 이때 이유선은 미국에서 공부한 원서를 활용하였는데, 구두회는 찰스 키슨(Charles H. Kiston, 1874-1994)³⁴⁾의 교재를 기억하고 있었다. 구두회는 이수업이 상당히 강도 높게 이루어졌으며,³⁵⁾ 그 덕분에 미국 유학 시절에 영어로 이론 과목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회상하였다.³⁶⁾ 이유선은 이후에도 구두회가 해방 이후 대전사범학교 교사로 취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구두회는 장수철·박재훈과 함께 요한학교 '음악 3총사'로 불리웠는데, 장수철은 2회 선배이고 박재훈과는 동기였다. 장수철(1917-1966, 본명은 장봉주)은 평양남도 대동군 출신으로, 1931년 황해도 사리원에서 안악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1938년 평양요한학교에 입학했다.³⁷⁾ 박재훈(1922-2021)은 강원도 김화군 출신으로 그의 가족은 남감리교 계통의 '배화'를 졸업한 장녀의 권유로 감리교를 받아들였으며, 형 3명은 모두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 어린 박재훈은 아버지의 권유로 가난한 교회의 청소를 맡아 자주 드나들었으며, 품음을 익히게 된다. 그는 이 시절을 "라디오도 음악회도 없던 시절, 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곳은 오직 교회뿐이었다. 3년 넘게 청소를 계속한 것은 성실했다기보다 예배당에 있던 오르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회고하였다. 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 진학 대신 농사일을 도우며 3년 간 학교 소사로 일하던 그는 평양에서 목회하던 큰형 박재봉의 도움으로 평양요한학교에 입학하였다.³⁸⁾

이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우정을 쌓았다. 이 시절을 구두회는 아래와 같이 회고하였다.

33) 이유선, "회상의 글," 123-124; 구두회는 당시 이유선 선생 댁에서 "사모님도 나를 밥을 또 쌀밥을 먹여서는 그래서 그 내외분이 나를 갖다가 길러 주셨어요"라는 말로 큰 사랑을 받았음을 회고하였다. 아르코, 『구두회』, 28.

34) 키슨은 영국 출신의 오르가니스트이자 음악교육가이다. "Kitson," 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harles_Herbert_Kitson [2021년 8월 2일 접속].

35) 아르코, 『구두회』, 28.

36) 아르코, 『구두회』, 79.

37) "장수철,"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2021년 8월 24일 접속].

38) "한국 교회음악의 아버지' 박재훈 목사의 삶과 찬송가,"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1664> [2021년 8월 24일 접속].

그리고 선배 장봉주(장수철을 지칭) 형이 졸업한 후 내가 음악부장이 되면서 합창지휘는 내가 맡고, 피아노 반주는 박재훈 군이 맡으며 요한학교의 남성 합창 그룹을 조직하여 때때로 학교의 채플시간에 봉사하는 것은 물론 주일 날 새벽마다 단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평양기독병원의 여러 병동들을 찾아 돌면서 각 병동 각층의 복도에 서서 새벽찬양을 함으로써 당시의 입원환자들에게 신앙적인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었다.³⁹⁾

세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1943년 봄에 도쿄 제국고등음악학교에 함께 진학하였으며, 평생 친구이자 동료로 관계를 이어갔다.⁴⁰⁾

한편 구두회는 요한학교 재학 중에 박대선(1916-2010)⁴¹⁾ 목사가 담임하는 창광산감리교회 성가대를 지휘하였는데, 그때 반주를 맡은 김경환(1921-)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김경환은 평안남도 용강군 출생으로, 박대선 목사의 부인인 정비다⁴²⁾ 선생으로부터 피아노를 배웠으며, 도쿄 동양(東洋)음악학교⁴³⁾에서 수학하였다.⁴⁴⁾ 두 사람은 해방 후, 1946년 대전에서 신집살림을 차렸다.⁴⁵⁾

39) 구두회, “요한학교 회상기,” 『평양요한학교와 이환신 교장』, 윤춘병 편 (서울: 평양 요한학교동문회, 2003), 174-175.

40) 2017년에 진행된 구술에서도 구두회는 장수철과 박재훈의 활동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으며, 때로는 경쟁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41) 박대선은 1940년 간사이가쿠인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였고, 1942년 같은 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42년 평양 창광산감리교회 목사로 부임하였으며, 이곳에서 구두회를 만났다. 1955년 보스턴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박대선,”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2021년 8월 2일 접속].

42) 구두회는 정비다가 하와이 출신이라고 구술하였다. 아르코, 『구두회』, 30.

43) 동양음악학교(현 도쿄음악대학의 전신)는 스즈키 요네지로(鈴木米次郎, 1868-1940)가 1907년 도쿄 간다에 세운 학교로, 일본의 사립 음악학교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학교에 속한다. “沿革,” 『東京音樂大學 홈페이지』, <https://www.tokyo-ondai.ac.jp> [2021년 8월 2일 접속]. 한국인 음악가 중에서 동양음악학교를 졸업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계정식, 이흥렬, 임동혁 등이 있다.

44) 아르코, 『구두회』, 32, 51-52.

45) 아르코, 『구두회』, 29.

3. 도쿄 유학 시절에서 해방까지

1943년에 요한학교를 졸업한 구두회는 일본 유학을 희망하였으며, 먼저 유학 간 장수철과 박재훈의 뒤를 이어 제국고등음악학교에 입학하여 작곡을 전공하였다. 박재훈에 의하면, 장수철이 가장 먼저 일본에 건너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다음으로 박재훈이 요한학교를 1943년 3월 3일에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구두회는 1주일쯤 뒤에 도쿄에 도착하였다고 한다.⁴⁶⁾ 구두회는 입학시험으로 이론 시험과 피아노 실기 시험을 치렀는데, 창광산감리교회에서 만난 정비다 선생이 피아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 주었다.⁴⁷⁾

제국고등음악학교는 일제 말에 한국 음악가 여러 명이 유학했던 곳으로, 정훈모, 전봉초, 나운영 등이 그 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의 역사가 상당히 복잡하여, 일본의 음악학자인 쿠보 에리아(久保絵里麻)가 정리한 학교의 연혁을 여기에 소개한다. 제국고등음악학교는 1927년 12월 ‘제국음악학교’로 문을 열었다. 이 학교는 1935년 2월에 일본대학 예술학부와 합병하는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다가 폐교되었으며, 1935년 3월에 ‘제국고등음악학원’(비인가, 원장: 스즈키 신이치⁴⁸⁾)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1937년 8월에 음악교육계의 원로인 다무라 도라조(田村虎藏, 1873-1943)⁴⁹⁾가 2대 원장에 취임하였고, 1939년 ‘제국고등음악학교’(인가)로 승격되었다. 1943년 11월 다무라 교장이 세상을 떠났으며, 1944년 3월에 폐교하였다.⁵⁰⁾ 이런 역사에 비추어볼 때, 구두회가 수학할 당시 학교의 이름은 제국고등음악학교가 정확하다.⁵¹⁾

46) 문성모, 『작곡가 박재훈 목사 이야기』 (서울: 흥성사, 2013), 38.

47) 아르코, 『구두회』, 30-31.

48) 스즈키 신이치(鈴木鎮一, 1898-1998). 일본의 바이올린 교육자. 스즈키 메소드의 창시자이다. “鈴木鎮一,” in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 [2021년 8월 3일 접속].

49) 일본의 음악교육가. 도쿄음악학교 출신으로 도쿄음악학교와 도쿄고등사범학교에서 가르쳤다. 언문일치 창가를 처음 시도하였으며, 노쇼 벤지로(納所弁次郎, 1865-1936) 등과 함께 메이지 시기의 주요 창가집인 『幼年唱歌』(1901-1902)와 『尋常小学唱歌』(1906-1907)를 펴냈다. “田村虎藏,” in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 [2021년 8월 3일 접속].

50) 久保絵里麻, “鈴木鎮一と才能教育—その形成史と本質の解明—,” (明治学院大学大学院博士論文, 2014), 97.

51) 구두회는 다무라 교장의 이름과 그의 조카가 서무과장으로 일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르코, 『구두회』, 41.

이 무렵은 태평양 전쟁 와중으로 일본에 유학 중이거나 활동 중인 음악가들이 징병 문제를 피하고자 귀국하는 시점이었다. 한국에 돌아온 음악가들은 주로 중등학교 음악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징집을 피하곤 하였다. 예를 들어, 작곡가 이진우는 1943년 말에 일본 활동을 접고 귀국하여 1944년 초에 개성공립여자고등학교와 강릉공립고등여학교 음악교원을 지냈다.⁵²⁾ 한편, 성악가 박은용은 1940년에 도쿄음악학교에 입학하여 수업연한이 8학기에서 7학기로 단축됨에 따라 1943년 9월에 본과 성악과를 졸업하고 연구과에 진학하여 1944년 3월까지 수학하다가 귀국하였고, 이화고등여학교에 취직한다.⁵³⁾ 구두회의 회고에 따르면, 입학 당시인 1943년 봄에 제국고등음악학교에는 이동훈(바이올린), 전봉초(첼로), 이동일(성악), 서창선(작곡) 등이 졸업반에 재학 중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박은용의 사례와 동일하게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1943년 봄학기를 끝으로 학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들 중에서 현악 전공자들은 학교의 추천으로 “만주제국에서 신설하여 모집하는 만주국립관현악단인 후생관현악단의 단원으로 특별 입단되어져 그곳에서 활동”⁵⁴⁾하였다고 한다. 다른 자료에도 전봉초가 1943년 ‘신경음악단’에 입단하여 활동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므로,⁵⁵⁾ 만주 정부가 일본 내 ‘조선인’ 유학생을 정책적으로 영입하였다는 구두회의 언급은 사실로 판단된다. 이런 불안정한 시국으로 인해 구두회의 학업도 평탄하게 진행되기는 힘들었다.

도쿄 생활에 대한 구두회의 회고를 잠시 들어보자.

우리 세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공동자취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녔었다. 그러나 장수철은 그 음악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째 되던 그달 초에 학

52) 노동은, “이진우의 삶과 예술,” 『음악과 민족』 39 (2010), 117. 노동은은 이 경력을 리진우, “작곡가 리진우의 경력,” 『동백꽃』(리진우 작곡집), 1에서 인용하였다고 적었다. 그런데 일제 말의 여자 중등학교의 명칭이 ‘고등여학교’였음을 고려하면, ‘개성공립여자고등학교’라는 학교명은 오류로 보인다.

53) 박은용의 이력은 허지연, “근대음악사의 분단 극복하기: 월북 음악가를 통해 본 1940년대 음악계,” 『음악과 민족』 60 (2020), 29를 참고할 것.

54) 한국교회음악협회 편, 『한국교회음악협회 55년사』 (서울: 한국교회음악협회, 2008), 30-31. 구두회가 말한 ‘만주국립관현악단인 후생관현악단’은 신경교향악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55) 岩野裕一, 『王道樂土の交響樂』 (東京: 音樂之友社, 1999), 264-266.

비조달을 위해 조선으로 일시 귀국했었다. 그러나 학비조달이 여의치 못해서 였던지 그는 그대로 고향인 사리원에 머물며 끝내 복교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박재훈은 제1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여름방학이 되자 만 한 달간을 동경 근교에 있는 일본 해군의 요코스카 군항의 증축확장공사인 축항공사장의 일 일고용 노무잡부로 매일 나와 함께 나가서 막노동을 했었다. 그리고 품삯으로 받은 돈으로 노자 삼아 [학비를 마련해오겠다 하고] 귀국했었다.⁵⁶⁾

위의 진술을 들어보면, 세 사람의 유학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입학시험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보다는, 오히려 수업료를 마련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힘든 과제였다. 장수철과 박재훈이 떠나고 혼자 남은 구두회는 학교 서무과장의 배려로 전기회사의 필경실에 취직하여 학비를 벌 수 있었다.⁵⁷⁾ 그러던 중에 지원병 강제 모집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⁵⁸⁾

구두회가 1944년 2월부터 6월까지 평양 연화동교회 부설 의성학교에서 가르친 것을 고려하면,⁵⁹⁾ 그의 도쿄 체류 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구두회는 같은 해 여름 평안남도 초등학교 교원양성소에서 2개월간 교육을 받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일본인 교사들이 모두 징집되어 전쟁터로 끌려가 일선 교사가 부족해졌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단기간에 교원을 배출하는 교원양성소가 운영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중퇴한 사람에게 입학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두회도 그곳에 입학할 수 있었다.⁶⁰⁾ 교원양성소를 마친 구두회는 8월부터 평안남도 강서군 초리면 강선리 소재의 초리국민학교에 재직하던 중에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⁶¹⁾ 이견우나 박은용처럼 일본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음악가들이 중등학교 교원으로 징집을 면제받고 생계를 이어갔다면, 구두회처럼 중퇴자들은 교원양성소

56) 문성모, 『작곡가 박재훈 목사 이야기』, 41.

57) 아르코, 『구두회』, 41-42; 한국교회음악협회 편, 『한국교회음악협회 55년사』, 34-35.

58) 구두회는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을 역임한 박춘금(朴春琴, 1891-1973)의 일가친척이 되는 친구로부터 이 소문을 들었다고 구술하였다. 아르코, 『구두회』, 24.

59) 구두회, “개인연보.” 이 자료는 구두회가 직접 작성한 이력서 및 작품목록으로 2017년 6월 9일에 작곡가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60) 아르코, 『구두회』, 35, 54.

61) 구두회, “개인연보.”

의 단기강좌를 거쳐 초등학교 교원으로 같은 시기를 넘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해방 이후 구두회의 삶과 활동

1. 해방 이후 한국전쟁기까지

해방 이후, 10대를 보냈던 대전에 자리 잡은 구두회는 1946년 봄학기부터 대전사범학교의 음악교사로 재직하게 된다. 그의 취직은 주병건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는데, 구두회는 그를 ‘학무과장’으로 불렀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병건이 1930년에 감리교 미션스쿨인 공주 영명학교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구두회는 감리교 인맥을 통해 주병건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⁶²⁾ 구두회는 “나를 길러주신 이유선 박사님이 미군정청 문교부 한국인 음악과장으로 계시니까” 추천서를 받아서 주병건에게 제출하였고, 대전사범학교 음악교사로 발령이 났다고 구술하였다.⁶³⁾

그런데 1946년 당시 이유선의 직위를 고려하면, 구두회와 이유선의 기억에 오류가 있어 보인다. 이유선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1945년에서 1947년 사이에 미군정청에서 두 가지 직분으로 일하였다.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온 직후부터 1946년까지는 재무국장인 찰스 고든(Charles J. Gordon)⁶⁴⁾의 보좌관으로 일하였고, 이어서 “문교부 장관으로 오천석 씨가 취임하게 되자” 그를 찾아가 음악과 신설을 제안하였고, 곧 새로운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⁶⁵⁾ 여기에서 문제는 오천석이 문교부장에 취임한 시점이다. 미군정청 문교부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6년 3월에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문교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기존에 한국인 학무국장을 맡고 있던 유억겸이 초대 문교부장으로 임명되었기

62) 주병건이 영명학교 교원이었다는 사실은 “양교원석방,” 『동아일보』, 1930년 1월 26일, 2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구두회는 주병건을 ‘부친의 친구분’으로 언급하였다. 한국교회음악협회 편, 『한국교회음악협회 55년사』, 38.

63) 아르코, 『구두회』, 27-29.

64) 고든 중령(Lt Colonel)은 초대 미군정청 재무국장이다. 『미군정청 관보』, *Appointment Number 3*, Sep. 29, 1945. 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l.go.kr/>)에서 “appointment number 3”을 검색하면 열람할 수 있다.

65) 이유선, 『2볼 80센트의 기적』 (서울: 작은우리, 1999), 156-164.

때문이다. 이때 오천석은 문교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오천석이 문교부장에 오른 것은 1947년 11월에 유역겸이 급사한 이후였다.⁶⁶⁾ 따라서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유선이 문교부장이 아닌 ‘문교차장’으로 오천석이 임명되었을 때 그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고 해도 구두회가 1946년 4월부터 대전사범 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추천서를 쓸 당시에 이유선의 직위는 재무국장 보좌관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맥락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군 정청에서 근무 중인 그의 추천서가 초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구두회를 중등학교인 사범학교의 교원으로 취직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⁶⁷⁾

대전사범학교 취직 이후 구두회는 평양에 있는 약혼자인 김경환을 대전으로 불렀다. 김경환은 6월에 평양을 떠나, 8월 하순 무렵에 대전에 도착하였고, 두 사람은 1946년 9월 17일에 결혼식을 올렸다.⁶⁸⁾ 김경환은 ‘대전여자중고등학교’에서 공립학교 음악교사 생활을 시작하였으며,⁶⁹⁾ 이후 수십 년간 피아노 개인지도와 교회 성가대 반주자로 활동하였다. 이런 행보는 식민지기에 음악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해방 후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⁷⁰⁾

이즈음에 구두회는 “미국에 유학하러 갈 꿈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영어공부를 별로 신통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⁷¹⁾ 해방 직후 평범한 한국인이자 미국 유학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목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구두회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동경하고 욕심낼 만한 일이었다. 특히 요한학교에서 공부한 시기에 그런 꿈은 더 강렬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한학교 입학에 대한 추천서를 써준 변홍규와 이환

66) 조건, “미군정기 오천석의 교육정책 수립과 역사교육,” 『역사와 교육』 21 (2015), 101.

67) 물론 혼란기에 중등교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등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속성과정이 운영되어 구두회가 이를 수료했을 여지는 충분하지만, 구두회는 중등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구술은 하지 않았다.

68) 구두회, “요한학교 회상기,” 186.

69) 구두회는 김경환의 취직 역시 이유선의 추천서와 주병건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회고하였다. 아르코, 『구두회』, 29. 김경환이 발령받은 학교는 구두회가 ‘대전여자중고’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6년제로 운영된 ‘충남공립여자중학교’(현 대전여자중학교의 전신)였을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에는 과도기적으로 6년제 중학교가 운영되는 사례가 있었다. 『대전여자중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djghs.djsch.kr/sub/info.do?m=0103&s=djgh> [2012년 8월 17일 접속].

70) 구두회, “개인연보”; 아르코, 『구두회』, 51, 69.

71) 구두회, “요한학교 회상기,” 186.

신 학감, 음악 스승인 이유선은 당시 모두 미국 유학을 다녀온 감리교의 인재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해방 직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개신교계 인맥을 통한 미국 유학의 기회가 종종 있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요한학교 교원이었던 홍현설이 뉴저지주의 드류대학으로, 창광산감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박대선이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학업과 이를 통한 자기실현의 욕구가 강했던 구두회에게 큰 자극이 되었으리라.

실제로 이 무렵에 구두회에게도 미국 유학의 기회가 찾아왔었다. 그가 대전 사범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1947년 6월 초에 이유선의 전화를 받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Full Scholarship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과 후보자를 추천하여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이유선은 구두회를 추천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연락을 했겠지만, 구두회는 어학 실력이 부족하고 신혼 초여서 가족을 두고 떠나기가 아직 불안하다는 이유를 대고 제안을 거절하였다.⁷²⁾ 이런 경험도 있었기에, 구두회는 늘 미국 유학을 위해 영어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냈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구두회는 부산 피난길에 오른다. 그러나 부산에서의 생활도 여의치 않아서 다시 대전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마침 대전으로 피난 내려온 국학대학의 문학부 영문학 전공에 편입하여 1954년 3월에 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⁷³⁾ 국학대학이 피난 중에 대전에서 문을 열었다는 것은 구술채록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전쟁 중에 힘들게 공부하셨겠다”는 필자의 말에 구두회는 “당시에 교장이 많이 편의를 봐주었다”고만 대답했을 뿐이다.⁷⁴⁾ 국학대학이 전쟁 중에 대전 충남도청 부속건물에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웹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⁷⁵⁾

이렇게 학업을 이어가는 한편, 구두회는 대전에 주둔한 미8군 171 의무대대(171 Evacuation Hospital, Taejon Korea)의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성가대를 지휘하게 된다. 이즈음에 대전에는 성결교회에서 봉사하는 조광혁(1918-2005)⁷⁶⁾

72) 구두회, “요한학교 회상기,” 186-187.

73) 구두회, “개인연보”: 국학대학의 역사는 “국학대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을 참고할 것 [2012년 8월 17일 접속].

74) 아르코, 『구두회』, 57.

75) “국학대학,” 『나무위키』, <https://namu.wiki/> [2012년 8월 17일 접속].

이라는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가 미국인 군목과 함께 전선으로 올라가면서, 성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구두회뿐이었다고 한다. 구두회가 지휘하고 부인인 김경환이 반주를 맡았는데, 영어로 지도하였다. 성가대 지휘는 처음에는 무료 봉사로 시작하였는데 얼마 후부터는 약간의 보수를 받았고, 그것이 전쟁 중의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⁷⁷⁾ 이 경험은 구두회가 영어 능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훗날 이 시절에 사귀 ‘캡틴 스미스’라는 미국인 장교에게 미국에서 중고 피아노를 하나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의 배려로 피아노를 선물 받을 수 있었다. 김경환은 이 피아노로 개인지도를 해서 남편의 유학 시절 동안 가족을 부양하였다.⁷⁸⁾

2. 보스턴대학으로의 유학

1954년 구두회는 대전 생활을 마감하고, 배재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서울 생활을 시작하였다. 감리교계 미션스쿨인 배재고등학교는 “감리교인으로 감리교단에서 몇 년 이상 이렇게 활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구두회가 채용된 것이다.⁷⁹⁾ 구두회는 이곳에서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교사 생활을 이어갔다.

구두회는 1957년에 오랫동안 꿈꾸던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그는 미국 감리교회에서 수여하는 크루세이드 장학금(Crusade Scholarship)을 받고 보스턴대학 석사과정에서 작곡을 전공하였다. 크루세이드 장학금은 현재는 운영되지 않지만, 1944년에 시작된 역사가 오래된 장학금이다.⁸⁰⁾ 구두회는 요한학교 은사이자 당시 감리교신학교 교장이었던 홍현설(1911-1990)⁸¹⁾이 한국 내

76) 조광혁은 1960년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침례교 음악목사 안수를 받았다. “조광혁,” 『한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s://kahistorymuseum.org/> [2021년 8월 19일 접속]. 구두회는 조광혁이 성결교회 전도부인의 아들로, 무사시노(武藏野)음악학교에서 유학했다고 회고하였다. 아르코, 『구두회』, 65.

77) 아르코, 『구두회』, 65-66. 이 부대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육군병원 자리에 주둔하였다.

78) 아르코, 『구두회』, 64.

79) 아르코, 『구두회』, 58.

80) 크루세이드 장학금은 필자가 구술채록 연구를 진행한 2017년 여름까지는 여전히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아르코, 『구두회』, 25, 각주15) 참고.

81) 평양 출생. 조부모때부터 독실한 장로교 집안이었다. 유년 시절 장로교 계통인 승

크루세이드 장학생을 선발하는 지부장이었고, 자신에게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감리교 계통의 미션스쿨 거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실적을 가진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되는데,” 구두회는 배재고등학교에서 가르친 이력으로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국학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영어 시험만 치르고 선발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⁸²⁾

구두회가 유학한 보스턴대학은 명문 사립대학으로 현재는 특정 교단과 연관이 없지만, 역사적으로 미국 감리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기관이다. 보스턴대학의 역사는 일군의 감리교 신자들이 1839년 버몬트주 뉴버리에 세운 ‘뉴버리 성경학교’로 출발하였으며, 1869년에 ‘보스턴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구두회가 보스턴대학으로 가게 된 것이 그의 선택이 아니라, 장학재단에서 배정한 결과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장학생이 뽑히니까는 배정한 학교가 보스턴이야”⁸³⁾라고 구술하였는데, 이런 상황은 그 당시에 보스턴대학이 여전히 감리교회와 깊이 연결되어있음을 시사한다. 1957년 가을, 37세의 구두회는 오랫동안 동경하던 보스턴대학에 입학하였으며, 특유의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학업에 매진하였다. 그는 2년 후인 1959년에 석사학위를 받고⁸⁴⁾ 귀국하였으며, 1963년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후 작곡가와 교수로서, 그리고 감리교를 대표하는 교회음악가로 활동하였다.

한편, 구두회의 평양요한학교 동문인 장수철과 박재훈도 구두회와 마찬가지로 해방 후 중등교원을 거쳐 1950년대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합창음악과 교회음악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장수철은 해방 직후인 1946년부터 1948년 초까지 강릉사범학교에서 음악

덕학교를 거쳐 1929년 감리교 계통인 광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33년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 1935년 간사이학원 신학부를 졸업했으며, 1939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46년 월남한 뒤 감리교신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1948년 미국에 유학하였다가, 6·25전쟁 중에 귀국하였으며, 1953년 감리교신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홍현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1년 8월 20일 접속].

82) 아르코, 『구두회』, 25, 61-63, 76.

83) 아르코, 『구두회』, 62-63.

84) *Boston University, Baccalaureate - Commencement, June 7, 1959*. 이 자료는 1959년 졸업생 명단을 수록한 것으로 보스턴대학으로부터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48년 3월부터는 장로교 계통의 미션스쿨인 서울 정신여학교의 음악교사로 재직하였다. 1949년 6월에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의 전신)를 졸업하였고, 한국전쟁 중에는 해군정훈음악대에 소속되어 정훈합창단을 지휘하였다. 1954년 도미하여 시카고의 무디성경학교(Moody Bible Institute)⁸⁵⁾와 아메리칸 콘서바토리(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⁸⁶⁾에서 수학하였다. 귀국 후 1957년부터 중앙신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르쳤고, 1960년에 월드비전의 창립자인 밥 피어스(Bob Pierce, 1914-1978)와 함께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여 상임지휘자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이끌었다. 말년에는 간경변이 악화하여 1966년 11월 8일, 49세로 삶을 마감하였다. 다수의 동요와 종교성악곡을 남겼으며,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⁸⁷⁾를 작곡했다.⁸⁸⁾

박재훈은 해방 이후 용산 금양국민학교, 신광여자중학교에 재직하였고, 1948년 4월에는 한경직(1902-2000) 목사가 설립한 대광중학교의 음악교사로 자리를 옮겨 1956년까지 근무했다. 1949년에 중앙신학교를 졸업하였고, 한국전쟁 중에는 해군정훈음악대에서 활동하였다. 1953년에 서울 영락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임명되어 유학 직전까지 일했다. 그는 한경직 목사의 주선으로 1959년에 미국으로 유학하여 인디애나폴리스의 크리스천 신학교(Christian Theological College)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다시 영락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았으며, 중앙신학교와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1973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1977년 캐나다로 이주하였으며, 1982년에 장로회 목사가 되었다. 다수의 동요와 종교성악곡을 남겼으며, 찬송가 《어서 돌아오오》⁸⁹⁾를 작곡했다.⁹⁰⁾

85) 현재명이 처음 유학한 학교이다.

86) 이유선이 졸업한 음악학교이다.

87) 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 453장.

88) “장수철,”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2021년 8월 24일 접속].

89) 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 317장.

90) 문성모, 『작곡가 박재훈 목사 이야기』, 411-420; 아르코, 『구두회』, 55-56.

IV. 글을 맺으며

구두회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공주제일교회에서 잡일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선교사의 배려로 교회 유치원을 다닐 수 있었다. 보통학교 고학년부터 대전감리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하였고, 이때 기본적인 음악이론을 익힌다. 보통학교 졸업 후에는 대전을 방문한 변홍규(당시 감리교신학교 교원)에게 진로를 상담하였고, 평양요한학교 입학을 제안 받았다. 그는 대전감리교회 담임목사인 서태원과 지역의 감리교 선교사인 찰스 아멘트와 매런 보딩의 지원을 받아 1940년 봄 평양요한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관서 지역의 대표적인 감리교 선교사인 존 무어가 세운 요한학교는 신학교육을 지향하는 기관인데, 이곳에서 구두회의 음악 인생이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당시 한국 전체에서 몇 명 되지 않았던 미국 유학파 음악가인 이유선을 요한학교 교실에서 만나 개인지도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감리교 목사의 아들인 이유선은 미국 시카고의 아메리칸 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이화여전 음악과에 부임할 계획이었으나, 총독부에서 발령을 거부하여 낙향한 상황이었다. 구두회는 이유선으로부터 작곡의 기초를 개인지도로 배우며 본격적으로 음악가의 꿈을 키웠으며, 평생 우정을 나누며 음악가의 길을 함께 걸은 장수철·박재훈을 만나게 된다. 졸업 후 세 청년은 1943년 4월에 일본 도쿄의 제국고등음악학교에 입학하지만, 전쟁 말기의 혼란 속에 짧은 유학 생활을 뒤로 하고 귀국한다.

해방 후 구두회는 미군정청에서 근무하던 이유선의 도움으로 1946년부터 대전사범학교 음악교사가 되었고, 한국전쟁 중에 대전에 피난 온 국학대학을 졸업한다. 종전 다음 해인 1954년에는 감리교계 미션스쿨인 배재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취직하여 서울로 올라왔고, 1957년에 미국 감리교가 주관하는 크루세이드 장학금에 선발되어 같은 해 가을부터 미국 보스턴대학교에 진학하여 1959년에 작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한다. 이후 그는 1963년에 숙명대학교 음악대학의 작곡과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감리교를 대표하는 교회음악가로서 역할을 발휘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구두회는 곤궁한 환경에서 엘리트 음악가의 반열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21년생인 그가 거처온 일제강점기 말의 전쟁기, 해방 직후와 한국전쟁 전후의 혼란기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고통을 겪은 시기였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청년기 구두회의 형편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절대 낮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배움을 통한 자기실현의 열망을 놓지 않았으며, 이미 요한학교 시절부터 고학을 결심할 정도로 신념으로 뚝뚝 뚫어 있었다. 그런 그에게 교회와 요한학교에서 만난 선교사·목사·스승이 신뢰를 보내었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97세의 구두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본인의 삶이 온전히 그가 믿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헌신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물질적으로 또는 자녀들의 성공으로 자신을 넉넉히 채워주셨다고 회고하였다.⁹¹⁾ 구두회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구두회라는 한 음악가의 사례에 한정하여 한국과 미국 교회의 후원이 그의 경력을 어떻게 이끌었는가를 논하였다. 그런데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가 여러 명의 개인으로부터 받은 지원의 이면에 20세기 전반 미국 개신교의 세계 선교 네트워크와 냉전 시기 미국이 주도한 문화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워낙에 큰 주제이고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구두회의 이력이 20세기를 관통하는 교회를 매개로 하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얽힘(entanglement)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연구가 한국음악계의 주요 후원자로서의 교회의 역할과 교회를 통한 미국의 지원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글검색어: 구두회, 한국음악사, 미국인 선교사, 감리교, 미군정, 한국전쟁, 이유선, 박재훈, 장수철, 평양, 제국음악학교, 배재

영문검색어: David Tuhooy Koo, History of Korean Music, American Missionary, Methodist Church, United States Army Military

91) 아르코, 『구두회』, 46-47.

Government in Korea, Korean War, You Sun Lee,
Jae-Hun Park, Su-Cheol Chang, Pyeongyang, Teikoku
Music School, Paichai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구두회. “한국적 예술가곡의 창작을 위한 논리연구와 시도작품 분석: 자작품 〈머들령〉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20 (1980): 447-493.
- _____. “요한학교 회상기.” 『평양요한학교와 이환신 교장』. 윤춘병 편, 173-189. 서울: 평양요한학교동문회, 2003.
- 김규현. 『한국 교회음악 작곡가의 세계』. 서울: 예술, 2006.
- 노동은. “이건우의 삶과 예술.” 『음악과 민족』 39 (2010): 107-146.
- 문성모. 『작곡가 박재훈 목사 이야기』. 서울: 흥성사, 2013.
- 민경찬.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양악편): 한국 근·현대 우리 양악 이야기』. 서울: 두리미디어, 2007.
- _____. 『승실과 한국의 근대음악』.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17.
- 박대선. “평양요한학교.” 『평양요한학교와 이환신 교장』. 윤춘병 편, 126-135. 서울: 평양요한학교동문회, 2003.
- 윤춘병 편. 『평양요한학교와 이환신 교장』. 서울: 평양요한학교동문회, 2003.
- 이유신. 『한국양악백년사』. 서울: 음악춘추사, 1985.
- _____. 『2볼 80센트의 기적』. 서울: 작은우리, 1999.
- _____. “회상의 글.” 『평양요한학교와 이환신 교장』. 윤춘병 편, 122-125. 서울: 평양요한학교동문회, 2003.
- 조건. “미군정기 오천석의 교육정책.” 『역사와 교육』 21 (2015): 95-128.
- 한국교회음악협회 편. 『한국교회음악협회 55년사』. 서울: 한국교회음악협회, 2008.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201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구두회』.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 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 서울: 한국기독교서회, 1983.
- 허지연. 『제국 속의 제국: 미국의 해외선교와 한국의 음악교육』. 서울: 민속원, 2019.
- _____. “근대음악사의 분단 극복하기: 월북 음악가를 통해 본 1940년대 음악계.” 『음악과 민족』 60 (2020): 17-55.
- 홍정수. “구두회, 김의작, 김두완의 교회음악.” 『장신논단』 14 (1998): 596-626.

久保絵里麻. “鈴木鎮一と才能教育—その形成史と本質の解明—.” 明治学院大学大学院博士論文, 2014.

岩野裕一. 『王道樂土の交響樂』. 東京: 音樂之友社, 1999.

기타 자료

구두회. “개인연보.” (허지연 소장)

『미군정청 관보』. *Appointment Number 3*. Sep. 29, 1945.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Boston University, Baccalaureate - Commencement, June 7, 1959. (보스톤대학 제공)

“공주제일교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1년 8월 10일 접속].

“국학대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12년 8월 17일 접속].

“국학대학.” 『나무위키』, <https://namu.wiki/> [2012년 8월 17일 접속].

『대전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djghs.djsch.kr/sub/info.do?m=0103&s=djgh> [2012년 8월 17일 접속].

“무어.” 『한국감리교인물사전』, <https://kmc.or.kr/dic-search> [2021년 8월 16일 접속].

“박대선.”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2021년 8월 2일 접속].

“변홍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1년 7월 31일 접속].

“보딩.” 『한국감리교인물사전』, <https://kmc.or.kr/dic-search> [2021년 8월 16일 접속].

“아멘트.” 『한국감리교인물사전』, <https://kmc.or.kr/dic-search> [2021년 8월 16일 접속].

“이유선.”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2021년 8월 2일 접속].

“이익모.” 『한국감리교인물사전』, <https://kmc.or.kr/dic-search> [2021년 8월

2일 접속].

“이환신.” 『한국감리교인물사전』, <https://kmc.or.kr/dic-search> [2021년 8월 2일 접속].

“조광혁.” 『한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s://kahistorymuseum.org/> [2021년 8월 19일 접속].

“홍현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1년 8월 20일 접속].

“Kitson.” 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harles_Herbert_Kitson [2021년 8월 2일 접속].

“福井直秋.” In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 [2021년 8월 3일 접속].

“沿革.” 『東京音樂大學 홈페이지』, <https://www.tokyo-ondai.ac.jp/> [2021년 8월 2일 접속].

“鈴木米次郎,” <https://kotobank.jp/word/> [2021년 8월 2일 접속].

“鈴木鎮一.” In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 [2021년 8월 3일 접속].

“田村虎藏.” In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 [2021년 8월 3일 접속].

국문초록

작곡가 구두회의 이력(履歷)과 한미 감리교회의 후원

허 지 연

구두회는 찬송가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찬송가』, 1983, 305장)의 작곡가로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다. 이 논문은 구두회라는 식민지의 가난한 소년이 미국과 한국 감리교회 인맥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60년대 이후 한국음악계의 중진이자 대표적인 교회음악가로 도약하는 궤적을 ‘교회의 음악가 후원’이라는 측면에서 다룬다. 이 연구는 아르코예술기록원이 주관한 2017년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의 일환으로 필자가 진행한 구두회와의 인터뷰를 출발점으로 한다. 그러나 구두회의 구술을 곧이곧대로 사실(史實)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 인물의 생애, 연관 기관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역사화하고 한 시대를 조망하는 통로로 활용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한국음악계의 형성에 미친 미국 개신교와 한국 교회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areer of Composer, David Tuhoy Koo and the Sponsorship of the Korean and American Methodist Church

Huh, Jeeyeon

David Tuhoy Koo (1921-2018) is well-known to Korean public as a composer of the hymn *Sacheore bombaram bureo itgo* (*All Year in our Home the Spring Breeze Blow*, in *Hymnal*, 1983, no. 305). This paper deals with the trajectory of his growth and achievement, from a poor church-choir boy to a representative church musician i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and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omposition at a major university in Seoul. In this process, at every decisive moment, the American and Korean Methodist networks intervened.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s my interview with Dr. Koo conducted in 2017, supervised by Art Archive, Arko. In this paper, I will historicize his words through cross-checking them with historical background, the lives of the related figures, and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related institutions. Through this, I intend to provide a concrete example of the influence of American Protestantism and the Korean church network o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music scene.

[논문투고일: 2021. 08. 31]

[논문심사일: 2021. 09. 16]

[게재확정일: 2021. 09. 24]